

순천, 민선7기 첫 해 국고 확보 총력

허석 시장 국회 방문 국고 지원 건의 공약·주요 현안사업 예산 집중 공략

순천시가 민선7기 공약사업과 지역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내년도 국고 확보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1일 순천시에 따르면 허석 시장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지역구 의원을 비롯한 국회 예결위원 등을 만나 시 주요사업의 당위성과 시급성 등을 설명하고 국고가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줄 것을 건의했다.

이번 방문은 내년도 정부예산의 국회상임위 예비심사를 앞두고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내년도 시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안정적인 재정확충이 절실하다는 판단에서 전격출발을 내딛고 있다.

이날 허시장이 건의한 사업들은 순천시가 반드시 확보해야 할 사업임에도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미반영된 사업들이다. 특히, 대통령 지역공약사업인 조경량 마그네슘 소재-부품산업 육성사업 2686억원 및 순천 기적의 숲 조성사업 480억원, 남해안권 발효식품산업 기반조성 및 지원센터 건립사업 160억원, 조경량 마그네슘 글로벌 연구센터 기반구축 사업 200억원, 별교-주암 간 3공구 국도 4차로 확장사업 3535억원으로 내년도 건의액은 201억원이다.

이번 방문을 통해 면담한 국회의원들도 건의사업에 대한 필요성 등을 공감하고,



허석 순천시장이(왼쪽 오른쪽이) 1일 더불어민주당 박흥근 의원(왼쪽 왼쪽)을 면담해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국고지원을 건의했다.

시와 함께 국고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시 관계자는 "향후 국회 예결위 본심사 등 정부예산안 최종 확정시까지 전행정력을 동원해 적극적인 국고 확보활동으로 현안사업이 국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20년도 국고 건의사업을 두 차례의 보고회와 토론 과정을 거쳐 총 121개 사업, 총사업비 1조 9천961억원, 건의액 2천900억원을 발굴했으며, 중앙부처와 전남도에 타 시군보다 한 발 앞선 확보활동으로 국고를 선점할 계획이다.

/순천=오승택 기자 ost6002@

여수, 전통시장·소외상권 활성화 연구용역

상권 실태조사·활성화 장기계획 수립 현대화사업 등 추진... 내년 1월 완수

여수시는 전통시장과 소외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지역 인성 전통시장 14곳과 상점가 1곳 외 비인성 전통시장을 포함한다.

주요 연구내용은 전통시장(상점가) 상권 실태조사·분석,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시설현대화 지원방안 모색 등이다.

분석범위는 상가현황, 판매업종, 매출현황, 수익현황, 유통구조, 여수시 상권별 지리현황, 시장주변 관광자원 등이다.

특히 시는 이번 용역결과를 토대로 정부지원 연계 연도별 투자계획, 소외상권 활성화 방안 등 시장·상권별 활성화 장기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19일 문수청사 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열어 용역수행기관으로 비스타컨설팅연구소를 선정했다. 용역결과를 내년 1월 중 나올 예정이다.

여수지역 내 전통시장은 11월 현재 14곳이다. 시는 올해 13억 원을 투입해 시설현대화사업과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가운데 여수 서시장주변시장은 지난 7월 중소벤처기업부의 문화관광형 희망프로젝트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곡성, 생물테러 초동대응 소규모 합동 모의훈련 곡성군은 지난달 31일 곡성기치마을전통시장에서 경찰서를 비롯한 곡성 119안전센터(담양소방서), 군부대 등 6개 기관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생물테러 초동대응 소규모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희망프로젝트사업은 각 시장의 특화요소에 집중해 쇼핑·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콘텐츠 개발, 환경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프로젝트사업 선정으로 서시장주변시장에는 국비 4억3천만 원, 시비 4억3천만 원 등 8억6천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시와 상인회는 2019년까지 노점광장에 먹거리 판매기반을 조성하고 연등전 등을 이용한 새 관광 동선도 개발할 계획이다.

침체됐던 중앙시장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개장한 청년몰도 개장 첫 달인 7월 2억여 원에 가까운 매출을

리는 등 순항 중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권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용역을 토대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대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수=오승택 기자 ost6002@

곡성에 '짚라인' 시설 들어선다

'짚라인곡성' 정식 개장...관광산업 활기 기대

곡성군은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짚라인 체험장 '짚라인곡성'이 지난달 27일 오픈하고 본격적인 손님맞이에 나섰다고 1일 밝혔다.

짚라인곡성은 곡성군 옥곡면 송정리 60-2번지 일대에 대지 682㎡, 연면적 464.30㎡, 4층 규모로 구축됐으며, 펜션 및 상가 건물까지 겸비하고 있어 이용자들에게 인락한 환경을 제공한다.

체험 비행 경로는 400m 길이 1개 코스를 2개의 라인으로 구성해 공중에서 섬진강을 가로질러 주변 자연경관을 볼 수 있도록 설계했다.

박현원 짚라인곡성 대표는 "천혜의

자연 경관으로 유명한 섬진강변에 위치한 곡성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더 많은 추억을 선사할 것"이라며 "섬진강을 건너는 공중 비행의 스릴감과 수려한 경치가 주는 경이로움을 한껏 느낄 수 있는 곡성 트랜드 관광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박 대표는 또한 "월 평균 이용객이 4천여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곡성군 관계자는 "짚라인은 곡성군민과 곡성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에게 새로운 레포츠 문화를 제공해 곡성 지역 관광 산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곡성=심선섭 기자



곡성군은 지난달 27일 옥곡면 송정리 60-2번지 일대에 짚라인 시설을 조성하고 개장식을 열었다.

보성, 제99회 전국체전 입상 선수들 격려

역도 선수단 축하·격려

보성군은 지난달 31일 '제99회 전국체육대회'에 전남도 역도 대표선수로 출전해 메달을 획득한 문유라·박행주(보성군청 역도단), 최가희(보성다향고) 선수를 축하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일 밝혔다.

보성군 역도대표단은 지난달 13부터 17일까지 전북 익산에서 열린 '제99회 전국체육대회'에서 문유라 선수(동메달1), 박행주 선수(동메달1), 보성다향고 최가희 선수(은메달2)가 각각 메달을 목에 걸었다.

격려식에서 입상한 선수들에게 포상금과 격려금이 전달됐으며 보성다향고 교장 김선경 및 보성군청 역도단 감독 김용철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그간 선수들의 귀한 땀방울이 우수한 성적으로 이어져



보성군은 지난달 31일 '제99회 전국체육대회'에 전남도 역도 대표선수로 출전해 메달을 획득한 문유라·박행주(보성군청 역도단), 최가희(보성다향고) 선수를 축하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일 밝혔다.

이어 "엘리트체육과 학교체육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보성=김용욱 기자 ywkim@

기사제보 2580@jndomin.kr

24시

굿모닝

보석불가마

사우나

혈액순환촉진

각종노폐물배출!

24시 굿모닝 보석불가마 사우나

첨단중앙로152번길 31

☎ 0507-1662-2207